

황민현 “라이브온’ 잊지 못할 시간...성장하는 계기 됐다”

JTBC 드라마 ‘라이브온’으로 첫 주연

“7회 마지막 장면, 가장 기억에 남아”

“라이브온’을 촬영하는 동안 좋은 사람들과 값지고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낸 것 같아 행복합니다.”

그들 ‘뉴이스트’의 황민현이 배우로서 첫 주연을 맡은 JTBC 미니시리즈 ‘라이브온’ 종영 소감을 밝혔다.

황민현은 13일 ‘라이브온’ 종영 서면 인터뷰에서 “고은택”을 만나서 느낀 감정들, 경험을 통해 저 역시도 조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고은택”을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러브(팬클럽)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말했다.

“라이브온”은 수상한 목적을 가지고 방송부에 들어간 서연고등학교 셀럽 ‘백호랑’(정다빈)이 엄격한 방송부장 ‘고은택’(황민현)을 만나 겪게 되는 상극 로맨스 드라마를 그렸다.

지난해 11월 첫 방송을 시작한 ‘라이브온’은 총 8부작으로 지난 12일 최종회가 방송됐다.

황민현은 극 중 완벽을 추구하는 엄격한 방송부장 ‘고은택’ 역을 연기했다.

고은택은 겉으로 냉정하고 엄격해 보이지만, 백호랑을 만나며 조금씩 다른 면모를 보인다.

또 두 사람이 겉모습에 가려진 이면을 보게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거리를 좁히며 가까워진다.

그 감정을 눈치채고 고은택이 백호랑에게 고백하면서 안방극장에 설렘을 안기기도 했다.

황민현은 “고은택”이라는 캐릭터가 처음에는 냉정하고 차갑지만 백호랑을 만나고 난 후 점점 부드럽고 다정하게 변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모습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첫 주연인 만큼 ‘고은택’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앞서 황민현은 제작발표회에서 첫 주연을 맡아 “굉장히 떨렸다”며 “첫 촬영까지도 긴장을 많이 했다. 감독님, 배우들과 함께하면서 긴장감과 떨림은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바뀌었다”고 밝힌 바 있다.

황민현은 “은택이가 많은 분께 단단한 캐릭터, 쉽게 휩쓸리지 않는 강한 친구, 마음을 주는 방법을 아는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드라마 속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는 7회 마지막 장면을 꼽았다.

7회는 학교폭력 오해를 풀고 전교생 앞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백호랑과 뒤에서 용기를 심어준 고은택을 비롯한 친구들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황민현은 “7회 방송 마지막 장면인 백호랑이 고민 끝에 라이브 방송으로 모든 것을 다 고백한 후에 고은택이 수고했다고 안아주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모든 오해와 사건들이 풀리고 백호랑과 고은택이 서로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다는 게 느껴졌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덧붙였다.

황민현은 본업인 가수는 물론 배우로서 첫발을 댄 만큼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지금까지 ‘라이브온’과 고은택을 사랑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덕분에 촬영했던 3개월 그리고 2달간의 방영 기간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며 “저도 고은택을 보내기가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은택이를 오래도록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황민현은 지난 2012년 뉴이스트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지난 2017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고, 데뷔 조에 포함돼 그룹 ‘워너원(Wanna One)’로도 활동했다.

현재는 뉴이스트로 복귀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에 캐스팅돼 연기로 영역을 확장했다.

뉴스



‘디어엠’ 박혜수·재현·노정의·배현성, 내달 26일 첫 방송

무보정 노필터 청춘 로맨스 드라마

싱그러운 청춘들의 캠퍼스 라이프를 그려낼 KBS 2TV 특별기획 금요드라마 ‘디어엠(Dear. M)’이 다음달 시청자들을 만난다.

“디어엠” 측은 오는 2월26일 오후 11시10분에 첫 방송된다고 13일 밝혔다.

“디어엠”은 서연대학교를 발각 뒤집어놓은 고백 글의 주인공 ‘M’을 찾으며 핑크빛 추리를 펼치는 무보정 노필터 청춘 로맨스 드라마다.

개성 있는 연기로 영화와 드라마를 종횡무진하는 배우 박혜수(마주아 역)와 대세 아이돌 NCT 재현(차민호 역)의 첫 연기 도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은 극 중 12년지기 절친 사이로 등장해 티격태격해도 호흡이 척척 맞는 남사친, 여사친 케미를 예고하고 있다.

노정의와 배현성은 서연대 공식커플로 통하는 ‘서지민’과 ‘박하늘’ 역을

맡아 설렘을 자극하는 로맨스 시청자들의 연애세포를 깨울 예정이다. 연애의 정석과도 같은 두 사람의 커플 케미는 올 봄 핑크빛 분위기를 선사한다.

KBS 예능센터 조현아 CP는 “주 1회 편성은 안전한 제작 환경을 확보하며 3개월 이상 화제성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디어엠의 장점은 신선함과 설렘이다. 대본을 읽어내려가며 느꼈던 설렘과 풋풋함을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우 박혜수, 재현, 노정의, 배현성 외에도 이진혁(김목진 역), 우다비(황보영 역), 이정식(문준 역), 황보름별(최로사 역) 등 모든 배우들이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올 것을 기대한다”며 “힘든 시기에도 열심히 촬영한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T Seezn, 뮤지컬 라이브쇼 ‘미드나잇’ ‘명성황후’ 공개

‘뮤:시즌’, 뮤지컬 한 편 매 회 선정해 작품 집중 조명하는 음악 라이브 프로그램



KT Seezn(시즌)의 뮤지컬 라이브쇼 ‘뮤:시즌’이 뮤지컬 ‘미드나잇:액터뮤지션’과 ‘명성황후’를 단독 생중계한다

2주 연속으로 진행된다. ‘뮤:시즌’은 뮤지컬과 시즌이 합쳐진 단어로 뮤지컬 한 편을 매 회 선정해 작품을 집중 조명하는 음악 라이브

프로그램이다. 라이브 무대와 함께 토크를 진행해 무대에서 보기 힘든 배우들의 색다른 모습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한다.

MC는 뮤지컬 음악감독을 활동해온 김문정 음악감독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슈퍼주니어 규현이 맡고 있다. 시청자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배우들에게 직접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등 소통하며 뮤지컬을 즐길 수 있다.

먼저 오는 18일에 생중계되는 ‘뮤:시즌’에서는 뮤지컬 ‘미드나잇:액터뮤지션’을 선보인다. 뮤지컬 ‘미드나잇’은 매일 밤 사람들이 비밀경찰에게 끌려가는 공포의 시대, 한 부부에게 12월 31일 자정 직전 불길한 손님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아제르바이잔의 작가 엘친(Elchin)의 희곡 ‘Citizen of Hell’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지난 2017년 국내 초연된 이후 다시 한번 관객과 만난다. 남편 ‘맨’역에 정동하, 아내 ‘우민’역에 김소향, 낯선 손님 ‘비지터’역에 김찬호가 출연

한다. 연주는 물론 노래와 연기까지 소화하는 액터뮤지션도 함께 출연해 ‘뮤:시즌’만의 라이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1월 25일에는 25주년을 맞이한 뮤지컬 ‘명성황후’가 생중계된다. ‘명성황후’는 비극적 삶뿐만 아니라, 여성 정치가로서의 진취적인 모습과 고뇌를 담아내 95년 초연 이래, 꾸준하게 사랑 받아온 창작 뮤지컬이다.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 한국 뮤지컬 역사상 최초로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 진출하는 역사를 쓴 작품이기도 하다. 25주년 기념 공연단계 화려한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은 ‘명성황후’의 주연 중에서, ‘뮤:시즌’ 생중계에는 명성황후 역에 신영숙, 고종 역에 강필석, 흥계훈 역에 박민성, 그룹 비투비(BTOB) 이창섭이 출연한다.

‘미드나잇: 액터뮤지션’ 편은 18일 저녁 8시, ‘명성황후’ 편은 25일 저녁 8시에 각각 Seezn(시즌) 앱에서 단독으로 생중계 된다. 통신사 관계없이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생중계 방송 다음날 저녁 6시부터는 다시보기(VOD)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더보이즈, 일본 활동 가속화한다

3월 첫 정규앨범

그룹 ‘더보이즈(THE BOYZ)’가 일본에서 활동을 가속화한다.

13일 소속사 크래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더보이즈는 오는 3월 일본 첫 정규 앨범 ‘브레이킹 던(Breaking Dawn)’을 발표한다. 더보이즈의 일본 내 신곡 발표는 지난 2019년 11월 첫 미니앨범 ‘타투(Tattoo)’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타이틀곡 ‘브레이킹 던’을 포함 총 8곡이 실린다. ‘브레이킹 던’은 댄스 베이스 트랙에 강렬한

임팩트를 지닌 댄스 넘버다. 사이니 태민, 몬스타엑스 등의 타이틀곡을 제작해 온 다니엘 김(Daniel Kim)과 타키(Takey), 핀란드 프로듀서 Karri(카리) 등이 뭉쳤다.

더보이즈는 일본 현지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소니 뮤직(Sony Music)을 통해 현지에서 활발하게 활약 중이다. 지난 앨범 ‘타투’는 발매 당시 타이워코드 데일리 세일즈 차트, 라인 뮤직 주간차트 1위를 비롯해 현지 주요 음악 차트인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빌보드 재팬 톱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 2위를 기록했다.

‘저작권법 위반’ 고발된 양준일

“작년 해명 법적 문제 없어”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13일 알려졌다.

양준일이 지난 1992년 발표한 2집 일부 수록곡의 작곡가가 P.B. 플로이드인데도,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다.

작년에도 온라인 상에서 양준일이 저작권을 무단 도용했다며 같은 지적이 불거졌었다.

이에 대해 양준일 측은 같은 해 9월 “양준일이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곡들은 양준일과 P.B.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라며 “P.B. 플로이드와 양준일은 작업 당시 한국에서 저작권은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P.B. 플로이드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혜원, ‘그대 없이 그대와’ 21일 발매

‘헬고음’ 가수 원(HYNN·박혜원)이 오는 21일 오후 6시 새 싱글 ‘그대 없이 그대와’를 발매한다.

원은 4옥타브에 육박하는 고음 덕에 ‘헬고음 발라드’로 각인돼 있다. 지난해 미니앨범 ‘아무렇지 않게, 안’을 비롯해 박근태 프로젝트 ‘한 번만 내 마음대로 하자’, 드라마 ‘구미호전’ OST ‘그대가 꽃이 아니면’ 등을 발표했다.

MBC TV 음악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 사상 최연소 가왕에 등극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증명했다.

이번 신곡 ‘그대 없이 그대와’ 음원 발매 전 공개한 콘서트 이미지에서도 성숙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



이 ‘그대와’의 슬프고 절절한 분위기와 시리고 쓸쓸한 겨울 감성을 표현했”고 소개했다.